

## 영양, 사람-자연-반려동물 공존 아름다운 도시

경북 첫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친화 도시' 자리매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다. 때문에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험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영양군은 2021년부터 반려동물 기반 사업을 준비했다.

2022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23년 '제1회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 행사 개최', 경북 최초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경북 최초의 영양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대형견 놀이터(298㎡)와 중소형견 놀이터

(300㎡)를 구분해 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향후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병원을 구축해 유기·유실 동물 등이 구조 및 응급상황 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든다.

2025년에는 반려동물 인프라 관련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 동물입양센터, 교육·홍보관, 카페 등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영양군 동물돌봄(복지)센터'를 개소해 동물과 주민이 다 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해 가고 있다.

수비면에 위치한 '국립 김마산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개밖에 없는 반려견 동반입장 및 숙박이 가능한 국립 휴양림으로서 작년에만 3만 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캠퍼들뿐 아니라 반려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조지훈 시인이 나고 자란 '주실마을'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 및 숙박이 가능한 고택들이 있어 고즈넉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반려동물이 마을껏 뛰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과 함께 싱그러운 산내음을 맡을 수 있는 '국립 김마산 자연휴양림'이 자리잡은 영양군은 반려인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권윤동 기자



봉화군 희망복지지원단, 봄맞이 사랑의 집 청소 봉사활동  
봉화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상운면에 사는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봄맞이 사랑의 집 청소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가구는 고령의 나이에 낡고 쓰레기 더미가 쌓인 비위생적인 집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원봉사에는 봉사자 총 20여 명이 참여해 생활쓰레기 및 집안 정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대대적인 집 청소를 통해 대상가구에 청결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권인석 주민복지과장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동참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봉화군제공)

봉화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상운면에 사는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봄맞이 사랑의 집 청소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가구는 고령의 나이에 낡고 쓰레기 더미가 쌓인 비위생적인 집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원봉사에는 봉사자 총 20여 명이 참여해 생활쓰레기 및 집안 정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대대적인 집 청소를 통해 대상가구에 청결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권인석 주민복지과장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동참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봉화군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여행안내 054-791-1717

### 단체장 일정



박현국 봉화군수는 3일 오전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열리는 '2024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현판제막식'에 참석한다.



윤석준 동구구청장은 3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계약 변경 협약식에 참석한다.

### 이남철, 고령군 스마트 농업도시 부자 농촌 건설

42억예산 투입 미래 농업 도시 고령 스마트팜 조성  
고령군, 300만 소비 시장 최적의 지리적 조건 갖춰

고령군이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령군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인프라를 조성, 다산면 좌학리 1007에 약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중이다.

스마트팜은 최신 벤로형 스마트팜 온실이다.

약 1만3010㎡(약 3942평) 규모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향후 스마트팜 확대와 청년농업인들이 고령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고령군이 스마트 농업 도시로 발돋움, 부자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첨단 자동화 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반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온실 내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작물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 미래 농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약 2.4°C의 기온 상승을 기록했다.

이 결과 사과, 굴, 배 등과 같은 과일의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령군은 미래 농업의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스마트한 노동, 소비자와 맞춤형 친환경 농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혁신으로, 기존의 노지농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다.

고령군은 최신의 벤로형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 중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 수익 안정성을 확보한다.

노동 친화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 및 가속화로 미래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영백 기자

### 경북소방, 국회의원 선거 특별경계근무 돌입

경북도 소방본부는 성묘 등으로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지는 청명·한식 기간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김성용 기자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이고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9일부터 10일 개표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경북지역 전 소방관서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출동하는 총동원 체제를 가동해 재난 발생 초기부터 총력 대응한다. 김성용 기자

### 봉화군 구제역 어렵었다... 청정지역 유지 안간힘

2024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선제적 대응  
소 2만8500두, 염소 3300두



봉화군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4주간 '2024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한다.

접종대상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소 622호, 2만8500두, 염소 107호, 3300두) 총 729호, 3만1800두다.

일제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한다.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접종 누락 개체발생 등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한다.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 항체검사소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으로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를 해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성기 기자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는 군에서 일괄 구매할 백신을 무상으로 공수의 4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소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 자가접종한다.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군에서 지원한다.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와 포획인력 2명을 지원해 접종 효율을 높인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지난해 5월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백신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3개월... 1억원 돌파

이사금쌀, 천년한우 세트 등 다양한 답례품 제공 관심 유도



김종대 정수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1억원 돌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 고향사랑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1억 400만원, 기부건수는 844건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10만원 기부건수가 7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 연령 기부자가 64%, 30대 23%, 20대 7%, 60대 이상이 6%이다.

경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상호기부금을 추진했다.

경주페이, 이사금 쌀, 단석가 찰보리빵,

축산농협 천년한우 세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벚꽃시즌과 1억 원 돌파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달 30일까지 '경주 고향사랑기부제 봄바람 행사'를 한다.

응모방법은 고향사랑e음 온라인 사이트 또는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해 경주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사랑기부금 기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양문석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이틀째...

### 중앙회, 편법 대출 여부 확인 담당 퇴사 직원 조사 불가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이틀째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녀가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출 관련 서류 허위 여부 확인에 이어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한 퇴사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팀은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 서류와 사업 증빙을 위해 낸 물품구입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심사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21년 당시 31억 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 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경제 활동이 없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을 받은 후 캐나다로 여학 연수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검사의 쟁점은 양 후보의 장녀가 정말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대출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이다.

앞서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

정한다"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측이 "업계 관행이라며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출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장 검사팀은 대출 과정에서 자녀를 사업자로 둔갑시키거나 서류 위·변조, 불법 행위 가담,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퇴사 직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사자의 사실 확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2021년 4월 대출실행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중앙회 측은 편법 대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퇴사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후보자는 전날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 강민구·오준호·용혜인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기본소득으로 수성구 바꿉시다" 야권 3당 후보들 공동 정책 서약

강민구 수성구(갑) 후보는 2일 합정복지관(2층)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새진보연합 공동정책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구(갑) 후보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오준호 수성구(을) 후보가 참석해 공동정책 발표 서약서를 작성했다. 강민구 수성구(갑) 후보는 "현재 인구 감소와 저출생 위기에 부딪혀 있다.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여 저출생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강민구 수성구(갑) 후보는 지역구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오후 5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신매광장을 시작으로 오후 6시, 동성로(구) 대백 앞에서 집중유세를 이어갔다. 조미경 기자

## "기회발전특구 유치는 여당 후보만 가능"

### 국힘 경산시 조지연 후보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사진)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예측 불허의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공격적인 국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기업 승계 상속 기준이 매출액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조 후보는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앵커 기업을 끌어들이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지역경제를 살릴 공약 추진은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만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산 출신으로 영남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온 조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청년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부대변인, 20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매시지 팀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힘 경북선대위는 조 후보에게 도당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과 지지세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경산에 인적 자원을 총동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경은 기자

## 대구선관위, 불법현수막 게시 일당 고발

###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 날인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지자체 일원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폐쇄회로)를 분석해 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추측에 나선 끝에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제한)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도태우 후보, 함운경 국힘 후보 규탄 성명

### "집이 싫으면 객이 떠나야"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무소속·사진)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함운경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기속한 집이 싫으면 객(客)이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함운경 후보는 대통령 출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도 후보는 "함운경 후보는 1980년대 반미학생 운동의 선봉에 섰던 지도부의 일원"이라며 "당시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을 표방했지만 중간 간부들까지 체제변혁론을 학습하고 깊숙하게 좌경화되어 있었음은 당시를 체험한 이들의 상식"이라 설명했다.

이어 "함운경 후보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좌경

성향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자성(自省)한 적이 없다. 민주화운동동지회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지닌 대통령에게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객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도 후보는 "좌경사상에 깊숙이 빠져 있다가 인정과 자성도 없이 오히려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며 보수 분류 정당의 주인 행세를 하니 너무나도 심하게 너무나도"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는 커녕 대중여론에 영향하여 이를 일파하게 비판하고 소영웅주의로 포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구하는 행태는 보수정당이 제 살을 깎아 먹으며 계속 악화되어 온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 후보는 "국민의힘은 원래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가치 수호를 최고의 덕목으로 공경하는 보수 분류의 정당"이라며 "함운경 후보는 대통령 출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 투표날 일하는 근로자 '투표 시간' 청구 가능

### 거절할 고용주 과태료 부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기간(5일과 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달 주요 행정기관과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 김장주 후보 영천·청도 9(구)하기 공약 발표

### 농촌경제 활력 관광특구 개발 약속

김장주 후보(영천·청도 무소속)는 2일 한신아파트에서 9(구)1배를 강행하며 선거캠프로 출근해 사·군민과의 약속 공약을 발표했다.

김장주 후보가 발표한 영천·청도 지역발전 공약에 농촌경제 적극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피폐해진 농촌경제에 활력을 넣고, 부동산 투기근절 목적으로 강화된 농지법의 조속개정으로 농지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지체 보조

확대, 농산물 재해보상 현실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 스마트 팜 단지 조성 확대를 통해 농민들의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암은천관광특구로 개발하고자 대규모 민자유치, 청도관광거점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장주 무소속 시군민 추천후보는 영천 장날을 기해 대규모 응원단으로 장려러 오신 유권자분들에게 행정과 소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은하 기자





중구청, QR코드 활용 민원서식 작성예시 안내

중구청은 4월부터 민원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15종에 대한 QR코드 작성예시 안내 서비스를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민원서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민원서식 작성예시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비치된 예시문을 확인하거나 안내

받기 위해 대기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QR코드로 작성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식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혼인 신고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등 15종이다. 조미경 기자

대구 미래혁신기술박람회 10월 개최...UAM·로봇 총출동

10월 23일부터 엑스코 전관 흥 시장 "신산업 중심도시로"

대구시는 미래를 밝힐 혁신기술의 장이 될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 eXpo 2024, 이하 FIX 2024)는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로봇,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혁신기술 통합플랫폼'이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 전관에서 개최된다.

최근 신산업의 부상과 산업 간 경계 약화로 인해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연계·융합하는 글로벌 신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신산업 정책을 중점 육성해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최적인 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이하 DIFA) 등 관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신산업 중심의 전문전시회를 기획·준비해왔다.

FIX 2024는 그간 개별적으로 개최하던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대구국제로봇산업전' 등을 DIFA를 중심으로 한자리에서 열어 국내외 정상급 기업과 연사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모빌리티관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2차전지, 전동화부품 등의 최신 기술을 내놓고, 로봇관에서는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인공지능로봇, 배송로봇, 자율주행물류로봇(AMR) 기술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ABB관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ICT, 사이버보안, 비메모리반도체,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과 사회, 경제를 이끌 ICT의 기술력을 보여준다.

스타트업관에서는 스타트업, 파트너사, 투자사 등이 참여해 IR피칭과 투자 연계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앵커기업의 인사들이 참석해 신산업의 트렌드와 기술을 소개하고, 30개국의 A급 바이어 200여 명이 수출 상담에 참여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FIX 2024를 세계 IT 3대 전시회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전문박람회로 만들 계획이다. 대구를 신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지난해 75억 국비 확보 성과...달성군, 우수공무원 포상

석경목 문화예술과 팀장 등 4명

달성군은 지난 1일 지난해 하반기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포상 대상자는 4명으로 문화예술과 석경목 팀장과 이경혜 주무관, 정책추진단 김경일 팀장, 배태랑 주무관이다.

문화예술과 석경목 팀장과 이경혜 주무관은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구지면 주민들에게

문화 및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및 기회발전 특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추진단 김경일 팀장과 배태랑 주무관은 교육부 주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화원초등학교와 달성중학교가 선정돼 국비 23억 원을 확보했다.

학교복합시설 조성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행정과 교육 협업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달성군은 작년 한 해 총 17건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돼, 7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했다.

한편 달성군은 4월에 부군수 주재로 국비공모

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국비 확보 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달성군은 민선8기 군정방향에 맞춘 주요 현안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관리하는 국·시·비사업 및 건의사항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중앙부처 방문 및 국회의원·시의원 방문 시 활용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는 앞으로도 중요한 전략과제이다"라며 "국정 과제와 대구시책을 중심으로 우리 군 현안 사항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중앙부처·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국비 120억 확보

추경호 의원 "문화예술 허브 조성"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국민의힘)은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구 달성군 중부권(옥포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달성군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360억원 가운데 33% 정도인 120억원의 국비를 확보,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며 문화

강좌실, 도서관, 수영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시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달성군에 교도소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로플렉스 유치), 생활가점별 복합문화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공간 확충, 낙동강·금호강 유역에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한 약속들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기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구청, 직원 대상 정신건강 특강·캠페인

우울증·스트레스 관리법 소개

남구청은 지난 1일 '꽃 피는 봄, 내 마음도 들어다 봄'의 주제로 직원 대상 우울·스트레스 관리법 특강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승희 교수가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법'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각종 악성 민원 및 격투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남구보건소·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진행한 생명 존중 문화조성 캠페인에서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QR코드 △희망의 메시지 전달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알리고, 관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켰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일선에서 민원인을 맞아 봉사하는 구청 직원들이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건강할 마음을 회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대구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확보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매년 공공분야의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

도다.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원 조달방식, 사업유형 등 재정 운용 구조가 유사한 그룹별(광역시, 기초지자체)로 신속집행 실적, 소비 투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달성군은 전국적인 지방세·교부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집행 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계획을 반영하고 재정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현황을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과 집

중력을 발휘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 계획 수립과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2023년 하반기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일반세입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청 女태권도, 전국대회 개인전 종합우승

금 1·은 3·동 1 일반부 정상 차지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3인조, 5인조 단체전에서도 각각 준우승을 거두며 실업팀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첫날 올해 국가대표(2인)로 선발된 강명진 선수와 김가현, 류지수, 박보의, 최어진, 이진주 선수가 5인조 단체전에 출전했다.

청주시청을 상대로 45:28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지만, 인천 동구청에 29:26로 석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둘째날 열린 -53kg급 개인전 결승에서 강명진 선수가 청주시청 신회진 선수에게 2:0으로 승리하며 팀에 소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57kg급 류지수와 -67kg급 이진주, -73kg급 유경민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마지막으로 -62kg급 박보의 선수가 동메달을 보며 개인전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대회 마지막날인 31일, 3인조 단체전에 주장 유경민 선수와 이진주, 박보의, 최어진 선수가 경기에 나섰다. 삼성에스원에 1라운드 13:5, 2라운드 18:9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으나 박보의 선수의 무릎 부상에 따른 기권으로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조성호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 실업팀 최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안전시책 평가서 동구청 2년 연속 최우수

동구청은 대구시에서 실시한 구군 안전 시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구·군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재난 발생 대비 상황, 안전점검 활동 등 전반적인 안전 시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생활밀착형 안전시책 추진 △비상대비역량 강화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재난대응 역량강화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동구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통합관리 모델 구축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 안전시책 추진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과 CCTV 증설, 초래산 등산로 비상구급함 정비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미경 기자

대구간송미술관 준공, 9월 초 개관 예정

국보·보물 전시 철저한 사전점검



대구시는 2일 대구간송미술관이 준공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점검 및 준비과정을 거쳐 9월 초에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총사업비 446억 원을 들여 2022년 1월 착공해, 연면적 800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 절차를 완료했다.

개관은 9월 초 예정으로, 개관전(開館展)에서는 미인도, 훈민정음, 청자상감운화문매병 등 국보·보물 4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관전 전시 유물들이 국보·보물급 유물인데다 습기에 취약한 지류유물(紙類遺物)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개관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4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가량의 개관 준비기간 동안 미술관 건물의 향온·향습, 보안·방범, 소방시설, 공기시스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보·보물급 유물들을 이송하기 위한 문화재청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전시시설과 조명 등을 설치하고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홍보영상 제작·배포하는 동시에 사전 시사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이 국보·보물급 유물들을 더욱 품격있게 담아내는 명품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사전 점검해 성공적으로 개관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예천군 경북도 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예천군이 경북도 주관 2023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군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경상북도가 매년 각 시·군 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자체감사활동(50%)과 반부패 청렴활동(50%) 2개 분야 총 19개 지표의 실적을 심사해 평가한다.

군은 지난해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에서 20건을 적발해 약 1천만 원을 회수하고, 명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선제적인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적극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자체감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도, 소나무재선충병 급속 확산 총비상

### 2022 11만→지자체 48만 그루 무려 4배 이상 늘어 예찰 강화

경북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은 2022년 11만 그루에서 지난해에는 48만 그루로 4배 이상 늘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예찰 강화, 지역별 맞춤형 방제 중점 추진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8203곳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한다.

도내 산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400명으로 명예산림감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항공·드론·지상 예찰도 강화한다.

피해조사목에 대한 완전 방제를 목표로 시·군이 191억원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890억원의 방제사업비를 투입해 선단지, 일반 피해지, 집중 피해지 등에 대한 맞춤형 복합방제를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지역 특별방제구역(포항, 안동, 고령, 성주 일원)의 방제율을 높이고 방제기간 확대를 산림청에 지속해서 건의해 특별방제구역 내 모두베기 사업지에 한해 매개충 집중 활동기(6~8월)를 제외한 연중 방제가 가능토록 방제기간을 연장한다.

도는 2019년 영양, 2023년 울진을 청정지역으로 환원시켜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백두대간으로 확산을 저지할 바 있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사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하는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 강영석, 안전한 근무 환경 만든다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일부개정

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2023년 3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중 하나로 제정된 이 지침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일부 개정된 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사전고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고려, 대응 민원 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민원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는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업무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68대를 배부했다.

약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 및 음성 데이터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협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원실 강화유리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강화, 민원인 위협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친절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직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산불위험 경각심 고취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경북도는 남부지방산림청,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와 공동주최로 '2024 산불예방을 위한 대형산불 사진전'을 연다.

전시회는 3-11일까지 9일간 개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맑은누리파크타워 전망대에 열린다. 사진전은 야외 활동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도내 발생한 대형산불의 사진 전시를 통해, 도민의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

해 마련됐다.

사진전에는 산림을 집어삼킨 거센 불길,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 화마와 밤샘 사투를 벌이는 진화대원 등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50점이 전시되고, 산불의 참혹성과 위험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맑은누리파크타워 전망대는 2022년 12월 개관,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전을 공동주최하는 (특)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 경북지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불 관련 교육·훈련, 연구·조사·감시 등 업무 수행을 통해 도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도는 사진전 개최와 함께 4~7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묘지, 유원지, 등산로 등 주요 산불취약지역과 불법 소각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조현에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들께서 대형산불 피해의 참상을 사진으로 보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산불 조심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 경북도, 2024 대형산불 사진전 개최

## 구미시, 왕산 허위 선생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 왕산家 다큐멘터리 제작 웹툰제작 홍보 적극 나서

구미시가 구한말 구미 출신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나선다.

왕산 허위 선생(1855-1908)은 구미시 임은동 출생으로 13도 참의군 군사장으로 활약했으며, 1908년 10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선생의 가문은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석주 이상룡 선생 가문과 함께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3대 독립운동 명문가로, 허위 선생을 비롯해 총 9명이 독립운동 서훈(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구미시는 올해 왕산家 다큐멘터리를 제작, 추모 공간인 경인사 사당 누각을 건립하는 등 왕산 허위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 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보존 문화조성에 힘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왕산 허위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구미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명문가 왕산 가문의 애국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외거주 왕산 후손 초청행사 지난해 4월 김장호 시장은 국제자매도시인 키르기스공화국 비슈케크시를 방문했다.

고국 방문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에게 구미시와 지역단체가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10월에는 왕산허위선생 순국 115주기 추모일에 맞춰 러시아, 캐나다, 키르기스공화국 등 해



외 및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왕산허위선생의 후손 13명을 구미시에 초청했다.

추모행사, 건강검진 실시, 기업체 견학, 시티투어 등 왕산 허위 선생 후손으로서 예우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왕산허위선생 웹툰 제작

구미시는 왕산家의 독립운동과 후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왕산 허위 선생의 의병운동, 3대에 걸친 왕산家 독립운동과 왕산 허위 선생 순국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흩어져 사는 후손들의 힘겨운 삶을 재조명한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왕산家 다큐멘터리는 다가오는 광복절 전후로 방영한다.

앞서 독립운동 선양프로그램에 따라 왕산 허위선생의 항일 투쟁기와 삶을 다룬 웹툰도 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e-구미독립운동기념관 누리집(https://www.gumi.go.kr/gumi815/index.do)에서도 볼 수 있다.

### ■왕산기념관 의미와 역할 활성화 노력

왕산기념관은 왕산허위선생과 관련된 60점의 물품 전시 외에도 보존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을 높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미관광시티투어 역사여행코스에 왕산기념관을 포함해 구미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도 구미의 자랑인 왕산허위선생의 애국정신을 홍보한다.

왕산기념관 옆 사당(경인사)에 내내 맡겨져 누각을 건립할 예정으로 해당 누각은 역사 교육의 장소는 물론, 방문객이 왕산의 발자취와 구미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매년 4월 2일 거행하는 탄신제와 10월 21일 추모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및 사당과 어울리면서도 편리성을 갖춘 전통 양식으로 건립한다.

### ■오태공원 조성 및 왕산家 조형물 설치

시는 왕산 허위 선생 외에도 왕산家 후손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구미 독립열사를 추모하고 자 왕산기념관 주변에 오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태공원은 임은동 산 7에 위치한다. 사업규모는 총 22만433㎡로 공원 내 왕산 허위선생 집안 14인의 독립운동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왕산의 정원, 기념 광장, 추모의 정원, 열사의 길 등을 조성한다.

오태공원이 조성되면 왕산기념관과 함께 구미시의 다양한 보존 프로그램과 연계해 많은 시민이 독립열사들의 발자취와 숨결을 느끼고 애국의 의미에 대해 깊이 돌이켜 볼 수 있는 호국보훈의 새로운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기자

## '세금내는 천연기념물' 예천 석송령 한시 개방

### 석송령 한시 개방...웅장한 노송의 진정한 가치 알려



예천군 천향리 석송령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천연기념물인 천향리 석송령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책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이다. 매일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회 30명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가까이서 석송령을 관람할 수 있다.

예천군은 그간 보호책에 둘러싸여 석송령의 외형만 바라보는 단방향 관람에서 벗어나 탐방객이 문화유산 향유의 주체가 되고, 문화유산과 소통하는 양방향 관람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방을 추진했다.

수령 6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석송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져 세금을 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마을에서는 석송령 재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석송령 한시 개방을 통해 웅장한 노송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문화유산의 주인공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명욱 기자

### '도리와 수니'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홍보 상주

상주시는 SNS 마스코트 '도리와 수니'를 통해, 지역 명소와 대표 축제를 홍보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상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애니메이션은 2D 모션 그래픽에 실물을 고품질 수작업 삽화로 제작, 상주시 대표 관광지 '경천섬' 등과 '상주시립도서관', 대표 축제 '세계모자페스티벌', '꽃감축제'를 더욱 현실감 높고 친근감 있는 영상미로 구현하고 있다.

이현균 공보감사실장은 "지역 홍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제작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경주보건소,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 3월 첫 시작

경주보건소는 지난달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내남에 소재한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서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을 한다. 사업은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질병관리청, 경주교육지원청, 경주시가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은 학령기 중심의 감염병 예방관리가성 인기건강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손씻기, 기침예절 등 매달 맞춤형 감염병 주제를 가지고 펼쳐진다. 선정된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기관으로 중도 입학학생, 외국인 가정 자녀 등의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수당 약 70명(9학급)으로 3개월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경주보건소는 지난달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내남에 소재한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서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을 한다. 사업은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질병관리청, 경주교육지원청, 경주시가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은 학령기 중심의 감염병 예방관리가성 인기건강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손씻기, 기침예절 등 매달 맞춤형 감염병 주제를 가지고 펼쳐진다. 선정된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기관으로 중도 입학학생, 외국인 가정 자녀 등의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수당 약 70명(9학급)으로 3개월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 ‘2024 산림박람회’ 경주서 막올라...

10월18일 경주엑스포공원서 개최 대한민국 산림 가치 중요성 알리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오는 10월 18~23일 경주에서 막을 친다.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경주시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개최지 선정은 전국 공모를 통해 3개 시·군이 신청했다.

산림청은 산림박람회 유치계획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행사 개최장소 예정인 경주엑스포공원의 기반 시설 여건과 외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0월 열리는 지역 최대 축제인 신라문화제와의 연계성, 지난해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치러진 ‘2023 경북도 산림박람회’ 성공개최 진도 선정에 배경이 됐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산림분야 대표 문화 축제로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산림정책 성과와 미래지향적 정책 비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행사다.

주요 행사로는 산림정책 홍보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주제 전시관, 지역의 산림사업 및 임산물 홍보를 위한 지자체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 목재 문화체험, DIY 원데이 클래스, 숲속 놀이터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이번 산림박람회를 통해 산림이 가지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휴양·치유·레포츠 체험으로 국민들에게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물론 숲에서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경북도 산림박람회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산림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시, 올 상반기 먹깨비 4종 할인 쿠폰 진행

쿠폰 당 3,000원 할인 혜택 제공 경주페이 결제시 중복 할인 가능



경주시가 올 상반기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다양한 할인 쿠폰 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쿠폰 행사로 △매주 일요일 할인 △삼나들이 △가정의달 △경주시민의 날 등 총 47지를 진행해 쿠폰당 30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매주 일요일 할인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200명에게, 봄나들이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500명에게 각각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가정의달 행사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300명에게, 경주시민의 날 행사는 6월 8일부터 예산 소

진시까지 500명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쿠폰 사용방법은 모바일에서 먹깨비 앱 다운로드 후 주문할 때 3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연계된 경주페이로 결제방법을 선택할 경우 중복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민간 배달앱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는 1.5%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와 함께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펼쳐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주시 가맹점 수 779개소, 매출액 13억4800만원을 달성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시는 향후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회원과 가맹점을 모집한다.

먹깨비 가맹점 신청 등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먹깨비 홈페이지,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 또는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소비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낙영 시장과 열린시장실 참가자들이 대외협력실에서 어린이 자치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제48기 ‘열린시장실’ 참가 신청 받아요~

3~6학년 초등학생 대상 경주엑스포대공원 방문 미디어아트 체험 기회...

경주시가 지역 3~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8기 열린시장실 참가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접수한다.

열린시장실은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시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세계역사 문화도시 경주시민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시장실을 견학하고, 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후 직접 시장, 부시장 등 간부 역할을 해보는 모의 회의 등으로 시정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현업 기관인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살롱헤리티지, 천마의 궁전에서 미디어아트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미디어아트를 쉽고 재밌게 경험함으로써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경주시청 누리집(열린시장실/소통24시/시장실 체험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열린 시장실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대외소통팀(054-760-2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열린시장실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와 공공실무를 직·간접적으로 실감하고 학교 밖 세상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최고 마라톤 대회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국내·외 1만 2500여명 참가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대회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6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및 도심 일대에서 만개한 벚꽃과 함께 펼쳐진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함께 개최하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국내·외 1만 2500여명이 일찌감치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접수 50여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올해 대회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풀코스는 제외하고 하프코스(10km, 5km) 세 부문만 개최한다.

참가자 접수 결과, 5km는 전년 대비 88%로 다소 감소한 반면, 10km는 전년 대비 119%, 하프는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로 알려진 보문호를 가족·연인과 오래도록 뛰고 싶은



사진은 지난해 4월 1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모습

참가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는 미주권은 물론 중국, 홍콩, 베트남, 방콕 등 31개국 7000여명의 외국인들이 신청서를 내면서, 경주벚꽃마라톤 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로 자리매

김한 것을 실감케 했다.

종목별 코스를 살펴보면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앞을 출발하는 5km는 보문 바르게살자 표 지식을 반환해 달리며, 10km는 보문 호숫가를 한바퀴, 하프는 경주여고 삼거리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코스다.

대회 당일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코스 곳곳마다 벚꽃비가 내리는 장관이 연출될 전망이다.

날씨에도 또한 좋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의 컨디션 역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경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국 및 외국에서 많은 신청을 해주신 동호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경주 전역이 벚꽃 축제의 장이 되어 경주의 멋진 봄에 향연이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획기적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울릉 건설



## 청송출산 서영수 대표, 인재육성장학금 기부

청송출산 서영수 대표가 지난 1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와 노인 복지기금에 각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청송출산은 풍각면 흑석리에 자리 잡은 산간계 농장으로 현재 10만수가량을 사육 중이다.

2022년부터는 사육밀도 준수, 가족분뇨 적정 처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 농립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서 대표는 2021년부터 매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과 인재육성장학금 등 지역의 기부문화에 동참하여 그간 누계 7천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매년 고령원성 조류독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희망 공동체 청도군을 만드는 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어르신과 함께하는 울진군 "孝 나들이"

새마을지도자임원협의회, 임원연세마을부녀회는 2일 관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울진군으로 봄맞이 효나들이를 다녀왔다.

효(孝) 나들이는 평소 경제적,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바깥 외출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임원연세마을회에서 매년 주관 시행하는 행사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일일 자녀가 돼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나들이는 울진군에서 새마을회원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 35여 명이 함께 했다. 식사, 관광명소 견학, 해안가 산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효 나들이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이웃과 함께 평소 가기 힘들었던 해안에서 나들이를 하니 마음이 탁 트이는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봄날보다 더욱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새마을회에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우재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이번 나들이를 통해 효를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임원연 새마을회는 평소에도 소외어웃 돕기, 관내환경정비활동 등 지역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단체이다. 권윤동 기자



## 청송군, 2024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청송군은 지난 1일 청송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청렴 실천 다짐을 통해 공직 내부의 반부패·청렴 분위기를 대내외로 표명,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정을 통한 청렴을 실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부패·청렴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공

정한 직무 수행 △근공·향응 수수금지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청송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도군,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문제 극복

## 2024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공시 청년 안정적 취·창업 지원 강화

청도군은 올해 고용률(15~64세) 79%, 121개 사업, 공공-민간 부문 취업자 2만8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연차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역의 일자리 책임성을 높이고 일자리 중심의 지방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은 청도군 홈페이지

와 지역고용네트워크(www.r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민의 지속가능한 삶 속에 혁신 성장 일자리를 만드는 청도'라는 비전으로 민선 8기 군정 목표 구현을 위해 4대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지역-산업적 특성을 고려,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군은 △신 미래전략형 신성장 농업인 육성 △청년층과 여성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중·장년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창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과 농·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등 청년 친화적 사회 인프라를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 수립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 영덕군, 소외계층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 올해부터 기존 11만→13만 책정 문화누리 모바일앱 카드 발급



영덕군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자동으로 금액이 충전된다.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 모든 영화, 전시, 공연, 문화-체육, 도서 등 문화예술분야와 체육시설, 체육용품, 시외버스-철도, 여행사, 관광지, 숙박, 온천 등 체육-관광분야 등이다.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잔액 확인이나 기타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하면 된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관내 사업자는 문화누리카드(mnuri.kr)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 안내를 참고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사랑한 자의 카드를 결제, 제 3자 사용, 비허용 상품 구매, 결제 후 일부부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등의 부정수급은 처벌받을 수 있어 가맹점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까지 지원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모두 자동 소멸한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4-730-6512) 또는 해당 주소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 청송군,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도내 최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종사자 1인당 연 20만원 지원

청송군의 사회복지사 복지점수가 도내 최고 수준이다. 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점수를 지난 1일부터 상향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점수를 종사자 1인당 연 20만원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단체)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했다.

## 체류형 관광 영덕DMO관광쌀롱 3차 회의 성료!

### 분기별 교육 분과 참여자 역량 강화에 매진 총동원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 28일 예주문화예술회관 예주생활문화센터에서 'DMO영덕관광쌀롱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참여자와 신입회원 등 33명이 자리해

서 열기를 더한 이날 회의는 재단 담당자의 올해 DMO사업 설명으로 시작했다. 5개 각 분과의 분과장 선출, 분과별 역할 분장,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올해 영덕DMO 운영 계획, 조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까지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앞으로 각 분과들이 이끌어갈 분과장이 선출됐다. 올해 선정된 2가지 필수사업(영덕관광멤버십, 영덕SNAP)과 2가지 기획사업(특별함이 있는 블

루로드 여행 feat. 길동무, 영덕 체험 버킷리스트, Smart Travel)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분과별 역할을 분담했다. 분과장을 중심으로 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아이디어를 모았고 난상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세워졌다. DMO 조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뤄졌다. 홍보 마케팅 교육, 기획 교육, 체험 상품개발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분기별 교육에서 분과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매진한다. 영덕DMO관광쌀롱의 전체 회의를 매달 정례화,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와 애로사항도 공유한다. 조여은 기자

## 울릉군, 2024 학교복합시설 2회 연속 울릉고 공모 선정

울릉군은 교육부가 공모한 2024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지난해 이어 2회 연속으로 총사업비 266억 울릉고다행복터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울릉고를 학교복합시설로 선정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1년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학교복합시설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그리고 학부모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사업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교육환경을 조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포함됐다.

복합체육시설을 지역의 부족한 체육공간·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체육 인프라 확보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고 터를 활용한 가칭 울릉다행복터 건립 사업은 경북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울릉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공간구성은 △지상 1층 어린이집 및 학생 학습 공간 △지상 2·3층은 복합체육시설(다목적 강당, GX실, 헬스장 등) △지하층 : 주차시설 등이 도입될 계획으로 2025년까지 교육기관과 실시협약 체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2026년부터 실시 설계와 공사 착공이 정상 추진된다면 2028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이 행복한 돌봄·체육·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관권 울릉군수는 "지난해 울릉학생체육관에 이어 울릉고등학교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돼 주민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울릉에서 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울진군, 환경분야 공모사업 시행

울진군은 15일까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분야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은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 관련 단체 활동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아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울진군 환경위생과(054-789-6715)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인지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2개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녹색 실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울진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성주



#### 성주군, 청년스타트업 창업자(팀) 모집

성주군은 '2024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창업자(팀)'를 오는 12일까지 5명(팀) 모집한다.

신규 창업 또는 창업 1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6차 산업분야, 제조 기술창업, 지식창업, 일반창업/기타로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품료업,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창업자(팀)에게는 1000만원 이내 임대료, 시제품 개발 재료비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1:1 멘토링, 창업 전문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콧집창업 등 단기 창업기능교육을 운영한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전담기관인 경북산학융합본부(478-6938), 성주군청 기업경제과(930-6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Details. Lists various support programs and their amounts.

####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일부 교통 통제

오는 7일 2024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당일 오전 9~오후 4시까지 마라톤 주행 구간 도로 교통이 일부 통제된다.

대회는 8120여 명이 참가해 시민운동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풀-하프-10km-5km 코스 4개 종목별 1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출발한다.

시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대회가 진행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주요 구간의 단계별 교통통제를 한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5km-10km 구간(시민운동장-경북전문대학교-영주역-서전교-등기소-강변2차아파트-시민운동장)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세부적인 교통통제 구간은 시민운동장-제2가항교-남부초등학교-영주역-에이스 스크린골프-신영주주유소(5km 반환점)-서전교-고현교(10km 반환점)-판타시온리조트-동촌삼거리-북부위농원(하프반환점)-순흥면사무소-선비촌-한국주유소-단산삼거리-구구2리-단산삼거리-백산서원-서전교-가흥2동사무소-등기소-시립도서관-현대강변2차아파트-시민운동장이다.

시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시청 공무원과 교통경찰, 모범안전자회 및 자율방범대 등 230여 명을 배치하고 교통관리와 사고예방에 나선다.

전상기 기자



####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합동 아웃리치 계몽운동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학기 맞이, 관내 12개교를 대상으로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의성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학업중단·성폭력·자살 예방을 주제로 "청소년 유관기관 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아웃리치는 지난 3월 18일 안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의성유니텍 고교까지 8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의성여중 등 4개교는 4~5월 중 실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청소년들의 새 학기, 새 출발을 응원한다"라며, "청소년의 위기에 적극 대처, 의성군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령군, 일자리·청년 정책 최고

#### 고용률 77.2%, 취업자 수 1300여명 증가 일자리로 행복한 고령, 통계 결과 입증

고령군의 적극적 일자리·청년 정책이 돋보인다. 이 사실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통계에서 확인됐다.

2022년 대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3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취업 및 실업 현황 등

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결과 보고서를 다.

실제 고령군의 주요 지표를 확인해 보면, 2022년 고용률(15~64세) 대비 2.4% 상승한 77.2%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전국(69.2%) 및 경북(68.4%)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00여명 증가한 1만9100여명으로 7.3%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1.2% 증) 대비 높은 상승률로 고령군정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유치 등의 주요 성과가 고용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실업률은 1.4%로 전국(2.7%), 경북(2.6%) 평균보다 1% 넘게 낮다.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가 등과 함께 견조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젊

고 힘있는 고령군의 기치를 증명하듯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53%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7.8%)했다. 전국(46.5%), 경북(39.2%)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 근로자 교통비, 임차료, 리모델링 지원 등 고령군의 적극적 일자리·청년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일자리는 군민 삶의 최우선 복지라는 정책적 기조에 안착적 고용지표를 유지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

젊고 힘있는 고령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배영백 기자

#### 의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의성군은 4~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한다.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자 예상되는 986가구 1,521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개 공공기관, 143개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하여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조사과정에서 수급 중지자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한다.

중지대상자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또는 다른 복지제도 연계 등 수급자 관리구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반기별 2회에 걸쳐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박재성 기자

## 영천시, 학생들의 꿈 응원 이어지는 장학금 기탁

#### 최기문, 소중하고 값진 장학금 우수 인재 양성... 행정력 모아



대한전문건설 경북도회 영천시운영위원회 300만 원, 농업회사법인 ㈜푸른 500만 원의 장학금을 2일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 경북도회 영천시운영위원회는 지역 전문건설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3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 총기탁금은 1900만 원에 이른다.

이임팔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영천의 인재에 키우는 일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업회사법인(㈜푸른 대표 한종협)은 북안면에 위치, 무항생제 친환경 계란 생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사회복지시설 계란 기부,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인재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2021년부터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한종협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영천의 인재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펼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장학금 기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소중하고 값진 장학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최은하 기자

## 의성군, 우수한 외국인재 유입... 경제활동 인구 확충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대상자 모집 유입 외국인 의성서 정착... 최대지원

의성군은 오는 19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일정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체류특례를 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입된 외국인들이 의성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의성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비인구감소 지역에서 의성군으로 이주 예정인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의성군청 관광경제농업국 미래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과정, 모집기간 등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성군에서는 외국인 25명이 기

업 14곳에 취업 이미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군은 가족을 동반한 외국인에게 주거비 지원, 0-2세 영유아 보육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과 같은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군 자체 예산을 들여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 영천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받으세요

영천시는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 '임신 전 건강관리'란 임신 전 기인기 남녀에 대한 생리학,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로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에 해당해야 한다. 영천시보

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필수로 검사해야 한다.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를 필수로 검사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방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54-339-7878)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하 기자

## '선우 김지원 사진전' 전시회 개최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LOTUS VILLAGE'라는 주제로 2~21일까지 3주간 누정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선우 김지원 작가의 사진전으로 연

(鍾)의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아 Pigment Print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 약 20점을 선보인다.

선우 김지원 작가는 개인전 4회, 단체전 12회 등 다양한 전시를 해왔다.

전상기 기자



# 2024 대구광역시일보

##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